



필리핀한상공회의소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uly 2024 Issue | Vol. 56

SPECIAL POINTS OF INTEREST

- '신흥 시장 성장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인프라' —page 1-2
- 높은 금리가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page 2-3
- 전력 요금 인하를 위한 에피라 법 개정—상원 의원 — page 3
- 필리핀 정부, 글로벌 반부패 순위 49위로 상승—Arta — page 4
- 상원, 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12% 부가세에 관한 양원 합의 보고서 비준 — page 4
- NAlA 수수료 인상, 인수 전 서명 완료 — page 5

[KCCP New Members] — page 5

‘신흥 시장 성장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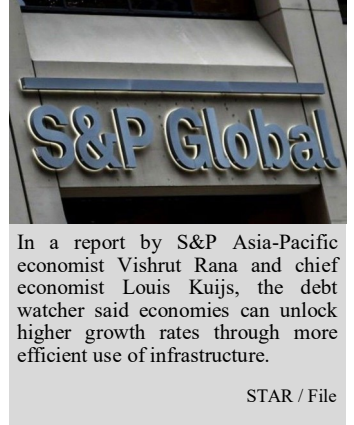
July 28, 2024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S&P 글로벌 레이팅에 따르면 아시아 신흥 시장, 특히 필리핀의 경제 성장은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인프라 투자의 증가를 통해 인프라와 물류의 상당한 개선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S&P 아시아 태평양 경제학자 비쉬루트 라나와 수석 경제학자 루이스 쿠이스의 보고서에서 이 신용 평가 기관은 인프라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경제가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된 인프라 성능은 경제의 생산 능력을 높입니다. 기업은 원활한 운영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입물과 제품을 쉽게, 빠르게, 비용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운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저자들은 말했습니다.

라나와 쿠이스는 필리핀의 공공 고정 투자 자산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필리핀의 공공-민간 협력(PPP) 자본 자산이 세계 평균보다 높으며 국내총생산(GDP)의 약 6.7%에 달해 이용 가능한 총 공공 자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필리핀의 물류 성과 지수(LPI) 점수, 즉 인프라 제공에 대한 세계은행의 척도도 2014년 이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흥 시장(EM)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더 큰 세계 경제와 비교하여 충분한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라나와 쿠이스는 "신흥 아시아는 세계 중간값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에 비례하여 자본 스톡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시아의 신흥 시장 경제는 더 높은 소득 수준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 규모에 비례하여 자본 스톡을 증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경제에 세 가지 투자 요구 사항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감가상각된 자본을 교체하고 유지하며, 경제에 비례하여 충분한 자본 스톡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에 비례하여 자본 스톡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지역의 신흥 시장 경제는 또한 창의적인 옵션을 사용하여 인프라 제공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율성 향상은 팬데믹으로 인해 이 지역의 인프라 지출을 위한 공공 자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는 공공 인프라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한편, 소프트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은 전체 인프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소프트 인프라는 경제 활동, 혁신 및 사회적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및 제도적 틀을 의미합니다.

규제 간소화, 프로세스 개선, 보다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민간 부문의 더 큰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소프트 인프라의 몇 가지 예입니다.

라나와 쿠이스는 "관세 절차 간소화나 공공 요금에 대한 규제 완화는 물류 성과를 원활하게 하고, 수익을 개선하며, 기존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ont. page 2]

‘신항 시장 성장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인프라’

[Cont. from page 1]

"소프트 접근 방식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고 공공 부문의 직접적인 자본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소프트 인프라와 관련된 병목 현상이 더 심각해 이 분야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정부는 4월 인프라 지출을 1,189억 페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73억 페소보다 36.2% 증가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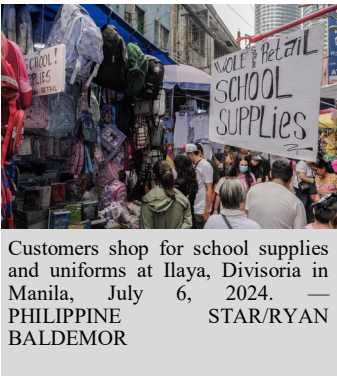
이러한 상당한 증가는 공공사업도로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지출 성과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도로, 다리 및 홍수 방지 구조물의 건설, 수리 및 재건축, 행정, 병원 및 다목적 건물의 건설이 포함됩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7/28/2373402/efficient-infrastructure-drive-growth-emerging-markets>

높은 금리가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July 29, 2024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Customers shop for school supplies and uniforms at Ilaya, Divisoria in Manila, July 6, 2024. — PHILIPPINE STAR/RYAN BALDEMOR

메트로폴리탄 은행 및 신탁 회사(Metrobank) 리서치는 높은 금리가 국내 수요를 억제함에 따라 필리핀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경제 성장이 여전히 견고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나, 투자 모멘텀이 긴축된 통화 정책에 의해 제한되고 있어 기업들이 투자하고 확장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라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메트로뱅크 리서치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5.7%로 예상하며, 이는 이전의 6% 전망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실현될 경우, 이는 정부의 6-7% 성장 목표를 밑도는 수치지만, 2023년 5.5% GDP 성장률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가 될 것입니다.

메트로뱅크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분기 동안 GDP는 5.7% 성장했습니다. 2분기 GDP 데이터는 8월 8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메트로뱅크는 또한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높은 차입 비용으로 인해 예전만큼 소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가게는 더 많은 부채를 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으며, 초기의 기대보다 더 신중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6월에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17년 넘게 최고 수준인 6.5%로 주요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통화위원회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450베이시스 포인트(bps)만큼 차입 비용을 인상했습니다.

2025년에는 경제 성장이 평균 6%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부의 6.5-7.5% 목표 범위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메트로뱅크 리서치는 올해와 2025년에 인플레이션이 BSP의 2-4% 목표 범위 내에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의 비용 상승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반적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BSP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올해와 내년에는 수용 가능한 수준 내에 머무를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인플레이션은 평균 3.3%, 2025년에는 3.1%로 BSP의 기준 전망과 일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6월에 3.7%로 완화되었으며, 이는 BSP의 2-4% 목표 범위 내에서 7개월 연속 안정된 수치입니다.

쌀 인플레이션은 6월에 23%에서 22.5%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쌀 인플레이션이 3개월 연속 느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부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강한 라니냐 현상이 농작물 생산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라고 메트로뱅크 리서치는 말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사건들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가격 안정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만, 우리의 전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nt. page 3]

높은 금리가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Cont. from page 2]

한편, 메트로뱅크 리서치는 중앙은행이 올해 최대 3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BSP가 올해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격이 안정되고 금융 시장이 차분하게 유지된다면 12월에 세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BSP 총재 엘리 M. 레몰로나 주니어는 이전에 8월부터 정책 완화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시사했습니다. 그는 중앙은행이 올해 최대 50베이스스 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SP가 8월에 금리를 인하하면, 이는 2020년 11월 이후 처음 있는 금리 인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SP는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며, 이는 필리핀 경제와 페소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페소는 연말까지 반등하여 달러 대비 약 57.20 페소에 정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예산조정위원회는 올해 페소가 달러당 56~58 페소 범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페소는 금요일에 달러당 58.35 페소로 마감했으며, 이는 화요일의 58.435 페소에서 8.5 센타보 강세를 보인 것입니다.

5월에는 현지 통화가 202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58 페소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달러의 강세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때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필리핀 중앙은행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라고 메트로뱅크 리서치는 말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거의 확실하게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총 66베이스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CME의 FedWatch 도구를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앞으로는 필리핀의 경상수지가 확대되어 다른 나라로부터 구매하는 양이 판매하는 양보다 많아지면, 페소 가치의 새로운 기준선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메트로뱅크는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7/29/610683/high-rates-seen-to-weigh-on-growth/>

전력 요금 인하를 위한 에피라 법 개정—상원 의원

July 29, 2024 | Butch Fernandez | BusinessMirror

상원 의원은 전기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전력산업개혁법(Epira)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높은 전기 요금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sinessMirror
A broader look at today's business

“우리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공급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셔윈 가차리안 상원 의원은 말했습니다.

가차리안 의원은 Epira의 어떤 개정든 전기 요금 인하를 목표로 해야 하며, 현재 국내 전기 요금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최근 국정 연설(Sona)에서 Epira의 검토를 촉구한 이후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가차리안 의원은 높은 가격 문제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pira 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차리안 의원은 Epira가 에너지 규제 위원회(ERC)가 산업 참여자들에 대한 책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RC는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는 ERC가 산업 참여자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EPIRA에서 강력한 조항을 원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ERC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져야 하며, ERC의 현장은 독립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 참여자들의 책임이 명확해야 하며, 위반자들에게 실제로 느껴질 수 있는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7/29/epira-amendment-to-lower-power-rates-senator/>

필리핀 정부, 글로벌 반부패 순위 49위로 상승—Arta

July 29, 2024 | Zacarian Sarao - Reporter / @zacariansINQ | Philippine Daily Inquirer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정부가 2024년 글로벌 반부패 순위에서 49위로 3계단 상승했다고 반부패위원회(Arta)가 월요일에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은 정부 효율성에서 3계단 상승하여 2024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서 49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보고서입니다!”라고 Arta는 전했습니다.

Arta에 따르면, 이 순위는 지난 6월에 발표되었으며, 67개 글로벌 경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경제의 경쟁력을 전 세계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는 벤치마킹을 제공하고 통계와 실질적인 설문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트렌드를 노출합니다.

이에 Arta는 필리핀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정부 서비스를 더욱 간소화하고 디지털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더 경쟁력 있고 사업 친화적인 ‘바공 필리피나스’를 위해 정부 서비스를 간소화하고 디지털화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라고 ARTA는 밝혔습니다.

ARTA는 혁신과 우수한 규제 관행을 촉진하는 전 국민적 접근 방식을 통해 정부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겠다는 사명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지방 정부가 국가 내에서 ‘사업 용이성’을 촉진할 것을 요구한 것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472019/ph-govt-rises-in-global-anti-red-tape-ranking-to-49th-arta>

상원, 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12% 부가세에 관한 양원 합의 보고서 비준

July 30, 2024 | KATA | BusinessWorld

상원은 월요일에 필리핀에 물리적 존재가 없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예를 들어 아마존, 시인, 타오바오와 같은 전자상거래 대기업에 12%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는 법안에 대한 양원 합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법안의 조정된 버전은 내국세청(BIR)의 “디지털 서비스 및 거래에 대한 VAT 부과 및 징수 권한”을 강화한다고 서원 T. 가차리안 상원 의원이 보고서가 채택되기 전에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양원 합의 회의의 공동 설명에 따르면, 양원은 상원 버전을 “작업 초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재정부(DoF)가 세금 개혁 가속화 및 포용법(TRAIN)에 따라 300만 페소 VAT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원천징수 세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규모 온라인 사업을 보호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와 전자 상거래 플랫폼은 서비스에 대한 VAT 송금을 위해 BIR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에는 아마존, 시인, 라쿠텐,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같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포함됩니다.

디지털 서비스는 인터넷 또는 기타 전자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온라인 검색 엔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미디어 및 광고,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상품이 포함됩니다.

현재 해외 기업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는 VAT가 적용되지 않으며, 입법자들은 이것이 국내 경쟁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거주자든 지역 사업자든 관계없이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세금 정책 하에서 운영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라고 가차리안 의원은 말했습니다.

법안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VAT 수익의 5%—약 9억 페소—가 디지털 창조 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7/30/610921/senate-ratifies-bicam-report-on-12-vat-on-foreign-digital-service-providers/>



SHEIN.COM

NAIA 수수료 인상, 인수 전 서명 완료

July 30, 2024 | Elijah Felice Rosales | The Philippine Star



Photo show the situation at the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NAIA) Terminal 3 in Pasay City on July 20, 2024.

STAR / Ryan Baldemor

마닐라, 필리핀 — 정부는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AIA)의 새로운 서비스 요금 매트릭스를 9월 14일에 공항이 민간 관리로 인계되기 전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교통부 차관 티모시 존 바탄은 기자들에게 NAIA가 예정대로 산미구엘(SMC)이 주도하는 뉴 NAIA 인프라 코퍼레이션(NNIC)에게 인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탄은 이에 앞서 정부가 공항 요금 수정안을 승인하여 NAIA의 가격 변동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전에 알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교통부 장관 하이메 바우티스타는 NAIA 요금이 2024년 말부터 인상될 것이며, 이는 정부가 NNIC에 부여한 1,706억 페소 규모의 양허 계약의 일환이라고 이전에 언급했습니다. 특히 항공사들이 공항 요금 조정의 첫 번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기 논의에 따르면, 올해는 착륙 및 이륙 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며, 승객 서비스 요금(PSC)은 2025년에 인상될 것입니다. 예상대로, 이 제안은 소비자 단체들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최근에는 Bantay Konsyumer, Kalsada, Kuryente (BK3)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제안된 조정안에 따르면, 국제 승객에 대한 PSC는 현재 550페소에서 950페소로 인상될 것이며, 국내 여행객에 대한 요금은 현재 200페소에서 390페소로 부풀려질 것입니다.

바우티스타는 이 가격 인상은 NNIC가 NAIA를 재활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을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MC의 주도 하에 NNIC는 NAIA 재활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항이 인계되면, NNIC는 공항을 업그레이드하고 연간 6천만 명 이상의 승객 수용 능력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최소 15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BK3과 같은 소비자 단체는 NNIC가 먼저 양허자로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BK3의 사무총장 패트릭 클리마코는 NAIA의 재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를 의문시하며, 이는 NNIC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리마코는 공항 요금 인상이 필리핀에서 여행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지만, 공항이 민간 관리 하에 개선되면 여행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NAIA의 개선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미 부당한 공항 요금 인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라고 클리마코는 말했습니다.

“NAIA의 재활과 관련된 동등한 요금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이는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요금 인상은 NAIA 프로젝트를 위한 정부의 설정된 매개 변수 중 하나입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7/30/2373925/naia-fee-hike-signed-turnover>

KCCP NEW MEMBERS

KCCP is proud to welcome the New Members as of July 2024

Mr. Renante A. Intia [Associate Member]
President
BICM Genesis Freight International Inc.

Mr. Jaehoon Oh [Regular Member]
Managing Director
Jinu Business Outsourcing Services, Inc.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Lotte Corporation is the largest shareholder of Pepsi Cola Products Philippines Inc.